

로저 그린 박사, 종교개혁에서 현재까지, 강의 20, 칼 바르트에 초점을 맞춘 20 세기 개신교

© 2024 Roger Green 및 Ted Hildebrandt

이 분은 로저 그린 박사의 교회사 수업인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입니다. 여기는 20번째 세션인 20세기의 개신교, 칼 바르트입니다.

저는 금요일을 좋아합니다. 금요일은, 글썄요, 약간의 경건한 기도나 그저 약간의 독서를 통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마음을 사로잡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칼 바르트에 대해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바르트를 언급했고, 여기 여기에 올려두었습니다. 바르트는 1934년 바르만 선언이라고 불리는 것을 형성하고, 쓰고,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르만 선언은 나치 독일의 상황에 비추어 신앙을 선언하기 위한 고백 교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래 위에 선을 그어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복음 편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나치 교회 편에 설 것입니까? 어디에 설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썄요, 알다시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작은 경건을 위해 바만 선언문에서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5절은 다음과 같고, 5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는 한 가지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할 내용에 대한 약간의 배경 지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5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황제를 공경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17. 성경은 교회가 존재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서 국가는 신의 명령에 따라 정의와 평화를 제공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국가는 인간의 판단과 능력의 척도에 따라 위협과 무력 행사를 통해 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교회는 이 신성한 임명의 유익을 감사와 경의로 그분 앞에서 인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계명과 의로움, 그리고 그로 인해 통치자와 통치받는 자의 책임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드시는 말씀의 권능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국가가 그 특별한 사명을 넘어 인간 삶의 유일하고 전체주의적인 질서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교회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거짓 교리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 특별한 사명을 넘어 국가의 특성, 과제, 존엄성을 전유해야 하고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자체가 국가의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짓 교리를 거부합니다. 이제,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다시 그 문제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에 대한 관점에서 여섯 번째 문단만 읽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라 ,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20,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었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 2:9입니다. 교회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사명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따라서 설교와 성례전을 통해 교회 자체의 말씀과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인간의 오만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임의로 선택한 욕망, 목적, 계획에 봉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교리를 거부합니다. 독일 복음 교회의 고백적 시노드는 이러한 진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오류를 거부하는 데 고백적 교회의 연합으로서 독일 복음 교회의 필수적인 신학적 기초를 본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 선언을 받아들이고 교회 정치에서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신학적 원칙을 염두에 두기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믿음, 사랑, 소망의 일치로 돌아가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바만 선언이 의도한 바였고, 어떤 의미에서 꽤 폭발적이었습니다. 제 말은,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의도된 모래 위의 선이었고, 누가 복음의 편에 설 것인지, 누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두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Barman 선언에 대한 꽤 강력한 내용이 있다. 알겠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은 강의 10, 14페이지, 칼 바르트의 전기적 스케치이고, 이제 우리는 B번, 신학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한 전기적 스케치? 칼 바르트의 삶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방금 개요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사람들인 4~5명과 함께 그것을 합니다.

좋아요. 오늘은 신학과 신학의 배경을 살펴보고, 그다음에는 칼 바르트의 특정 신학적 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르트가 믿었던 것은 개신교 자유주의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개신교 자유주의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 전 그의 전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가 그 속에서 자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의 결과이고, 주로는 성경을 개방한 결과로, 그는 여기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느끼고, 기독교 신학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그는 신학을 일종의 개신교 자유주의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가 우려하는 한, 이 첫 번째 배경 요점에서, 여기서 단어는 적응입니다. 그가 우려하는 한, 개신교 신학은 더 광범위한 문화에 적응했습니다.

그는 더 광범위한 문화에 대한 그 적응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가 할 일은 바로 그것이고, 그가 떠맡을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적응의 두 가지 영역을 언급할 테니, 여기 배경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수용의 한 영역은 과학, 문화, 예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자연 신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그런 종류의 문화적 요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과학에 대한 판단 없이, 문화의 세계와 예술의 세계에 대한 판단 없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종류의 매우, 그런 종류의 긍정적인 태도를 비난하는데, 그의 신학을 살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이 신학적으로 가는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술라이어마허 이래로 개신교 신학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는 여기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가 꽤 비판적인 한 영역이 있는데, 그의 신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비판적인 두 번째 영역은 이 개신교 자유주의가 감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 자유주의가 그가 종종 신비주의 또는 종교적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감정을 강조하는 것, 술라이어마허가 우리를 이끈 이런 종류의 경험적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성경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비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기독교 생활을 살아가는 것과 관련하여, 감정, 감정 또는 경험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그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려는 것은 신학을 종교개혁 신학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의 가장 좋은 해석자, 우리가 가진 가장 좋고 가장 강력한 성경 해석자는 종교개혁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루터, 특히 칼빈과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는 성경을 보고, 글썄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말합니다. 글썄요,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들은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신학을 종교 개혁 교리에 근거하도록 하자. 지금 당장 그렇게 하자. 그것이 개신교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게 그가 참여했던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운동은
 신정통주의라고 불립니다. 제가 그것을 넣었나요? 저는 그것을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그가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준 운동은 어떤 의미에서 신정통주의
 또는 새로운 정통주의라고 불립니다. 이제 새로운 정통주의라는 말은 20
 세기에 들어온 개혁 정통주의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신정통주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좋은 제목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직함을 경멸적으로 사용합니다. 제 말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라벨을 붙여서 장소와 시간에 따라 그들을 식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술라이어마허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글쎄요, 신정통주의 신학의 형성자 중 한 명은 칼 바르트입니다. 그러니까
 , 그게 첫 번째일 뿐입니다. 그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테드와 제가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누군가가 제게, 오, 저는 칼 바르트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는 정말 자유주의적이었어요.

그 문장은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때조차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너무
 자유주의적입니다. 저는 그를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가 싸운 바로 그 것이 개신교 자유주의였으니까요
 . 그가 기독교 신앙을 위태롭게 한다고 느낀 바로 그 것이 고전적 개신교
 자유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맞서 싸웠고, 꽤 놀라운 방식으로
 자유주의에 맞섰습니다.

좋아요. 그 배경 자료에 대한 게 있나요? 그게 그가 왜 그곳에 갔는지에
 대한 감각을 제공해줍니다. 좋아요.

그럼 두 번째, 신의 초월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좋습니다. 이제,
 프로테스탄트 자유주의는 신과 우리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신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연결해 주는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슬라이어마허에게 신의 의식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예수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는 신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신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처럼 되고 싶어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자입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프로테스탄트 자유주의가 한 일은 이런 위대한 종류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칼 바르트가 나타나서, 글썄요, 물론 당신은 전부 틀렸어요. 성경은 연속성의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연속성의 단어입니다.

신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에 대해 말장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거룩합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또는 신은 완전히, 전적으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또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하지만 칼 바르트에게는, 신을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예수와 나 같은 것으로 말하는 일은 그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신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신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개신교 자유주의가 우리에게 말했듯이 연속성이 아니라, 우리와 신 사이의 불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신의 초월성에 관해서, 그의 주장은 개신교 자유주의가 사람들에게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신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신의 현존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감정으로, 아마도 경험으로, 아마도 어떤 종류의 지식으로. 하지만 칼 바르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초월적인 신에게 다가가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바르트가 보기에, 당신이 초월적인 신 앞에 섰을 때의 당신의 태도는 죄악, 무력함, 약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이해할 때에만 신이 당신의 삶에 침투하여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그가 신의 초월성에 대해 말할 때, 어떤 의미에서, 그는 성경이 무력함과 약함 등에 관해 말하는 모든 미덕을 강조하고, 당신의 삶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줄 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자유주의적인 이야기가 모두 당신이 자신의 힘,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으로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아니라 불연속성이예요. 임박함이 아니라 신의 초월성이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의미에서 신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그가 말하는 것은 신은 이해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은 우리의 지식, 감정, 경험 또는 무엇이든 파악되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자유주의 기독교가 마치 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꽤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신은 대상이 아니라 주체입니다. 그는 주체입니다.

신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이성적 지식이나 경험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신의 초월성에 관해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바르트가 문화적 문제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더 넓은 문화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더 넓은 문화는 어떻습니까?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의 세계나 예술의 세계, 역사의 세계 또는 일종의 지적 지식의 세계 등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글썄요, 자유주의 기독교에 있어서 신은 일종의 문화의 수호성인이었습니다.

신은 친절했고, 문화 등을 축복하는 존재였지만, 칼 바르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칼 바르트에게 신은 모든 문화의 심판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신이 나치와 나치 독일만 심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들은 틀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모든 문화를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화가 어떤 의미에서 신에게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가 신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나치 독일은 극단적인 예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사악함과 비인간성 등 때문에 신이 그것을 심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은 모든 문화를 심판합니다. 신의 축복을 받은 문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수호성인은 아니지만, 그는 판사입니다. 좋아요, 칼 바르트의 신학이 신의 초월성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고, 신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으시죠. 만약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칼 바르트에게 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초월성. 저는 바르트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반드시 바르트를 여러분에게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에 대한 요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연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저는 당신이 자신의 신학과 사고방식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것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초월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가 왜 이것을 다루어야 했는지, 그것이 개신교 신학이 어디로 갔는지에 비추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리고 그가 왜 이런 방식으로 그것을 다루어야 했는지 이해합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적 계시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이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좋아요, 신의 초월성. 세 번째는 죄, 인간의 죄입니다. 좋아요, 이제 무슨 죄인가요... 우선, 어떤 의미에서 그는 라인홀트 니버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전 강의에서 라인홀트 니버를 언급했지만, 니버는 원죄가 모든 교리 중에서 가장 경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매일 볼 수 있는 교리를 보고 싶다면, 매일 볼 수 있는 교리를 알고 싶다면, 거의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교리를 알고 싶다면, 그것은 원죄 교리입니다. 글썄요, 바르트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는 확실히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로, 바르트가 보기에, 인류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성경에서 보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한 일은, 제 말은, 우리의 자연적 능력조차도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 능력조차도, 다시 말해서, 그는 아퀴나스나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습니다. 우리의 타락 속에서, 우리의 자연적 능력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연적 능력이 제거된다면, 우리는 추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더하거나 그것을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연적 능력은 제거되지 않았지만, 심각하게 방해받았습니다. 바르트가 보기에, 그것은 심각하게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속에, 하나님께 대한 반항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일을 했나요? 그것의 궁극적인 끝은 무엇일까요? 글썄요, 그게 우리와 신 사이에 썬기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와 신 사이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것은 모래 위의 선입니다. 신은 한 편에 있고, 우리는 다른 편에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한 일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이 죄스럽고 반항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게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이 가르친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 당신의 감정, 법을 따르는 것, 좋은 도덕적 사람이 되는 것, 또는 이성, 추론하고 생각하는 능력으로 자신을 신의 은총에 둘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신의 은총에 둘 수 없고, 자신을 둘 수 없고, 신을 마치 당신에게 무언가를 빚진 것처럼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신에 반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이제 그에게, 바르트에게 불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문화적 업적을 포함하지만, 또한, 미안합니다, 또한, 오, 아니요, 자연 신학이라는 단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알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문화적 업적을 포함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매우 위대하고, 훌륭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바르트는 모차르트를 사랑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바르트는 음악을 사랑했고, 모차르트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모차르트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업적 중 일부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제가 적지 않은 것 같았지만, 적었다고 생각했지만, 자연 신학을 선택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자연 신학에 대해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연 신학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연 세계를 보고, 우리 주변의 세계를 보고, 신과 신의 본성에 대해 몇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물론, 고전적인 개신교 자유주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계시된 신학보다는 자연 신학에 의지했습니다.

바르트는 말했습니다. 아니, 자연 신학은 자연 신학에 의지해서 신에 대한 어떤 추론도 할 수 없습니다. 자연 신학에서 신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연 신학에서 신의 속성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습니까? 자연 신학은 바르트에게 어디로 인도할 것입니까? 물론,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날을 보면서 신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은 질서, 평화, 조화의 신입니다. 쓰나미가 우리에게 오고, 쓰나미로 10만 명이 몰살당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자연 신학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신이 하는 일이 그런 것입니까? 그는 쓰나미로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10만 명, 20만 명을 몰살시키고, 온 도시를 몰살시키고, 등등. 그러면 자연 신학에 의지한다면, 신에 대해 무엇을 추론하시겠습니까? 글썄요, 당신의 추론은 그가 변덕스러운 신, 사악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신학은 신을 이해하는 방법이고, 그건 바르트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연 신학에 크게 의존했던 그룹 중 하나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래로 로마 가톨릭교였습니다. 바르트는 그렇지 않고, 그가 개신교도들을 골라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톨릭 신자들도 골라내고 있어요. 그는 결정을 내릴 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저는 19세기와 20세기에 일어난 신학에 도전해야 합니다. 좋아요, 그럼 죄악에 대해서요.

이제, 질문은 죄악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이 반문화적 메시지인가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죄악, 인류의 죄악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신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적 업적 중 어느 것도 신 앞에서 우리를 승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신학을 통해 신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문화적 메시지인가요? 그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답은 절대적으로 반문화적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에 대한 반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그들은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에 대한 반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괜찮습니다.

그게 그들이 말하는 거야. 난 괜찮아, 너도 괜찮아. 난 괜찮아, 너도 괜찮아.

나는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당신은 당신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합니다. 보세요, 바트, 그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좋아요, 여기서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죄인이 있나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즉, 당신 목록의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세 번째로 두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저는 이것을 그의 신학, 그리스도론의 핵심에 두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있다면,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돌파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참된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참된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참된 소통은 예수님입니다. 좋아요, 이것은 우리를 성경에서 바트가 가장 좋아하는 장으로 이끕니다.

그럼, 제가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이예요, 알겠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서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헌트 박사가 쓴 요한 복음을 가진 사람 있나요?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좋아요, 아마 서론은 훨씬 지났을 겁니다. 맞나요? 6장에 있습니다. 좋아요, 스티브에게 수업이 3주 남았다고 말해 주세요. 수업이 3주 남았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로 3주 남았습니다. 좋아요, 그냥 그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서론은 이미 마쳤군요.

글쎄요, 이 서론은 꽤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을 시간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노트에 적어두고 매우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4입니다. 좋아요, 요한복음 1:14는 칼 바르트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14는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독생자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제, 바르트는 이 구절에 대한 구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간단히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간단히 신학이라고요. 바르트에게 있어서 이것은 성경적 메시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14 .

나머지 성경은 요한복음 1:14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것은 바르트에게 성경 본문의 중심이며, 요한복음 1:14는 신학을 요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바르트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성경 메시지의 중심이라면, 그것은 기독교회의 중심 교리가 성육신 교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의 중심 교리는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바르트가 보기에 다른 모든 것은 성육신 교리에서 비롯됩니다.

성육신 교리는 시작이자 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약하면 신학이고, 정말 놀랍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뚫고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십니다. 좋아요. 이제, 여기서 잠깐 말해야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죄성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르트가 말하는 방식은 은혜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류의 죄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성을 뚫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제, 그가 말씀하신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는 우리의 아니오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YES는 우리의 NO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의 죄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NO라고 말하지만, 칼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의 YES는 그 NO를 압도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NO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루터처럼 그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삶에는 여전히 신의 정당화가 있지만, 저는 여전히 신에 대한 반항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삶에서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아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면에서 루터와 매우 비슷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반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이는 우리가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선행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의존합니다.

우리는 오직 신의 자비에 우리 자신을 던지고, 우리는 전적으로 그의 은혜에 의존합니다.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르트는 보편주의자였습니까?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르트는 모든 사람이 신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까? 왜냐하면 신의 은혜는 우리의... 신의 예는 우리의 아니오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신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신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그게 이야기의 끝인가? 신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인가? 글쎄요, 그는 그 질문에 실제로 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열린 질문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마도 허구일 겁니다.

저는 누군가가 바르트에게 보편주의자냐고 물었고, 그는 소문자 u로 시작하는 보편주의자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확실히 그 방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를 극복한다는 강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는... 죄와 죄는 궁극적인 삶이 없습니다. 그것은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확실히 그 방향으로 기울었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좋아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예수님 위에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트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것은 바르트가 그리스도론에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론에 관한 그의 가장 위대한 구절이 무엇인지 추측해 보세요.

누구라도 그것에 대해 추측하고 싶은가? 다시 말해봐. 좋은 추측이야.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의 가장 위대한 구절, 이것 적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론을 다루는 그의 가장 위대한 구절은, 그가 보기에 모든 구절 위에 있는 구절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전체를...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1장 전체를 11장까지 가져갈 수 있지만, 그는 5절부터 시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에, 그리스도론에 관해서...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론적 논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부터... 초기 교회, 예수 그리스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가 보기에, 예수는 완전한 신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신적이고 완전히 인간적이에요. 그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어요. 완전한 인간성과 완전한 신성을 분리할 수 없어요... 예수의 완전한 인간성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2:5에서 11까지를 설명하는 멋진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5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이 마음을 여러분 안에 두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붙잡을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발견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5~8은 주님이 우리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2:5~8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종이 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의 이야기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9절을 주목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글썄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종이 우리의 주님이 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구절을 다루는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가 보기에 성경에 있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론적 구절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다루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종이 되고, 종이 우리의 주님이 되고, 그것은 바르트에게는 일종의 원을 그리며 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종이 되셨지만, 종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당신은 계속해서 원을 그리며 돌아다닙니다. 당신은 그 두 가지, 인간적 본성과 신적 본성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론적 논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300페이지나 400페이지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시간을 할애합니다. 좋아요, 그게 예수님이시고, 두 구절,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요한복음 1장 14절과 그리스도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좋아요, 잠깐만 여기서 멈추죠. 예수에 대한 게 있나요? 칼 바르트의 죄 없는 구세주 예수에 대한 게 있나요? 좋아요, 그럼 우리는 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우리의 죄성을 뚫고 나오는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다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주장의 종류를 이해합니다. 좋아요, 다섯 번째는 성경, 성경입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 첫 번째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의미합니다. 좋아요, 그럼 그는 성경으로 무엇을 할까요? 글쎄요, 그는 무엇을 할까요... 어머, 이건 좀 복잡해지지만, 어쨌든 그는 성경으로 무엇을 할까요? 그는 성경에 대해 비유적으로 논쟁할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론에 대한 비유를 사용할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고 동시에 완전한 신성입니다. 그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가 관련해서 유추적으로, 그는 쓰여진 단어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주장합니다. 그는 쓰여진 단어가 완전히 인간적이고 동시에 완전히 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에게 완전히 신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칼 바르트에게 신으로부터 온 말씀이지만, 칼 바르트에게는 완전히 인간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르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것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르트가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지 설명하려고 할 뿐인데, 그는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교리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교리에서 성경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발전시켰습니다. 그가 보기에 성경의 기본적인 임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 직업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진 이유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때,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가 하고 있는 일은 의식적으로 중간 지점을 취하는 것입니다. 중간 지점이란 무엇일까요? 중간 지점이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는 자유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의 말씀이 아니고 일종의 인간 책임입니다. 이 책에서 신과 예수에 대한 몇 가지를 추론할 수 있지만, 자유주의는 신의 말씀의 권위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는 그가 보기에 근본주의는 성경에 대한 견해를 내놓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예수에 대한 그들의 견해보다 더 높은 것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그들의 관점 때문에,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론적으로 옳다면, 그들의 예수에 대한 관점은 그가 완전한 신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의 인간성이나 신성 중 하나에 빠진다면, 그것은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경에 대한 견해는 그것이 전적으로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신성합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보기에, 그들은 여기에 일종의 종이 교황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관점보다 더 높은 성경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보다 더 높은 성경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여기서 중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이 일반적으로 좋은 책일 뿐이고, 당신이 그것을 읽는다는 자유주의적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그는 성경의 교리를 예수의 교리보다 위에 두는 근본주의적 관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주장할 것이고, 그가 관심 있는 한 중간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이제, 그의 성경관에서 비롯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의 중요성과 선포의 중요성입니다. 바르트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주된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주된 일은 이 책에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바르트에게 핵심입니다. 바르트 자신도 설교자였지만 설교는 핵심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개신교도입니다. 그는 훌륭한 개혁자입니다. 그게 개혁자들이 성경 설교를 중요성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유럽을 여행하면 많은...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에 가면 루터교 교회에 많이 가는데, 거기가 루터교가 매우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들의 조각상들을 좋아해요. 그 교회들에는 루터의 조각상이 많이 있어요. 루터의 조각상을 보면 루터가 서 있고, 종종 그는 성경을 가리키고 있어요. 조각상이 성경을 가리키고 있어요.

글쎄요, 그건 매우 종교 개혁적이고 매우 개신교적이죠, 그렇죠? 글쎄요, 바르트는 그것에 동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성경을 설교하는 것은 경전에 대한 높은 관점의 파생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에 대한 높은 관점의 두 번째 파생물은 계시에 대한 그의 관점, 계시되는 것에 대한 그의 관점입니다. 좋아요.

바르트가 보기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계시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의 마음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성경을 이해할 때 오지 않습니다. 그때가 진정한 계시가 오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진정한 계시가 일어나는 때가 아닙니다.

좋아요. 진정한 계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를 연구할 때 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오는 것이지,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계시는 우리가 성경이 우리를 연구하도록 허락할 때 온다. 그래서 바르트는 말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듣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성경에 접근하지 않으며, 성경을 연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성경적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적 메시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청취자가 될 때만 성경적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설교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몇 주 후에 우리 중 일부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그들에게, 또는 교회에 말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성경을 연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그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바르트는 그것에 도전할 겁니다. 모든 연구가 중요하지만, 모든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설교가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바르트에게는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성경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넘어갑시다.

여기 성경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좋아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정부로 내려가 봅시다. 여기 정부로 가보죠. 정부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당신은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정부도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저자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의 저자이십니다. 좋아요, 바르트에게 조심해야 할 점은 기독교가 어떤 형태의 정부와도 결코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르트에게는 기독교적인 정부 형태가 없습니다. 그저 신이 두시고, 신이 두시고, 신이 운영하시고, 특정한 책임이 있는 정부 형태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떤 형태의 정부와도 결코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은 국가를 세웠습니다.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모든 정부가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에 묶여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그들은 인간의 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세요, 교회, 대문자 C, 어떤 형태의 정부와도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형태의 최악스러운 기관과 연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형태의 정부와도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은, 왜 그가 나치 정부를 비난하는 데 그렇게 관여했을까요? 그가 어떤 형태의 정부에도 자신을 연결할 수 없다는 그의 원칙에 충실할 것이라면, 교회는 이 신에 의해 세워졌고, 정부는 신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는 왜 나치 정부를 비판했을까요? 이제 다른 질문은, 우리가 나중에 과정에서 공부할 디트리히 본회퍼가 왜 히틀러를 죽이려는

시도에 관여했을까요? 그는 바르트보다 훨씬 더 관여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죽이려는 시도에 관여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신학, 교회, 국가에 충실했다면, 무엇이 이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하게 했고 심지어 본회퍼가 히틀러를 죽이려는 음모에 관여하게 만들었을까요? 글쎄요, 간단히 말해서,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독일에서 기능하고 있는 정부가 신에 의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이 정했다면, 그것은 신이 정부에 보여주기를 바라는 특성, 즉 연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예시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이 정부가 하도록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치 독일이 했던 것과 같은 일, 즉 한 번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을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정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지도자나 정부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도자가 없고, 거짓 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견해로 설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정부를 보고 그 정부가 신에 의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정부에 충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본회퍼가 정부를 비판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바르트가 정부를 비판할 수 있었고, 그래서 본회퍼가 결국 히틀러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황제를 공경하라. 성경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서 교회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국가는 신의 명령에 따라 정의와 평화를 제공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나치가 정의와 평화를 제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살롬,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 교리를 거부하고, 국가는 특별 위임을 넘어 인간

삶의 유일하고 전체주의적인 질서가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소명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사람들의 삶의 유일하고 전체주의적인 질서가 되려고 했고, 당신은 교회의 소명을 떠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치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온갖 이유가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바르멘 선언은 바르멘 선언이 어떻게 끝나는지 주목합니다. 바르멘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듣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르멘 선언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예수의 선언으로 끝납니다. 꽤 끔찍했지만, 그것이 정부입니다. 좋아요, 그럼 배경, 신의 초월, 죄, 예수, 성경, 정부. 칼 바르트와 관련된 것이 있나요? 그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시나요? 그가 진자를 정통으로 되돌리게 한 방법을 이해하시나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교회사 수업인 종교개혁에서 현재까지의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0, 20세기의 개신교, 칼 바르트입니다.